

분열 중단 대통합 호소 공동성명

광주·전남 국회의원 4인, 김종인 선대위에 지도부 권한 이양도 촉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사·도당은 지난 4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당직자, 당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참배 행사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우윤근 강기정 신정훈 의원 등 광주·전남지역 4명의 국회의원은 18일 최근의 탈당 및 분당 사태와 관련,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7면>

더민주 소속 이들 국회의원 4인은 이날 “분열을 중단하고 대통합을 호소합니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최근 지역민심이당을 불신하게 되면서 현역의원들의 잇따른 탈당과 신당행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소속 의원으로서 뼈아픈 자성과 반성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당은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숙명이었고, 응어리진 한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며 “탈당과 분열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사·도민이 지키고 키워주신 개혁세력의 맏아들, 더민주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친노와 비주류의 분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도 아니고 야권 전체의 분열만 초래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탈당을 고민하는 의원들이 당에 남아 함께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달라”며 “호남을 위해서도 더 이상의 분열을 중단하고 대통합으로 나아갈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특히 “더 이상의 분열을 중단하고 대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문재인 대표와 현 지도부는 국민에게 천명하대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김종인 선대위원장에게 대표와 지도부 권한을 확실하게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어 “새로운 인재의 발굴과 영입도 계속해야 한다”면서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사·도민이 함께 해주시고 힘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

민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영문명은 ‘The Minjoo Party of Korea’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지는 당보의 제호를 2016년 신년호(제12호)부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당보’로 바꾸고 새 출발을 합니다.

본지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혁신하여 도민과 당원들을 찾아뵙는 희망 전령사가 되겠습니다. 도민과 당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신년사

김성곤
전남도당 위원장
(여수 갑)



분열 대신 통합의 길로 나아갑시다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김성곤입니다.

‘붉은 원숭이의 해’인 2016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 새해는 강건하고 기상이 넘치는 붉은 원숭이의 기운을 받아 도민과 당원 여러분 모두에게 태양처럼 활활 타오르는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전남은 지난 해 창당 60주년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의 ‘심장부’이자 ‘뿌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전남을 비롯한 호남의 현역 의원들의 잇따른 탈당으로 당의 근간인 당원들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뼈아픈 자성과 반성을 합니다. 호남의 최다선이자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호남민심이 우리당을 불신하게 된 데 대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홀어지면 패배합니다. 분열하면 총선승리와 정권교체가 불가능합니다. 탈당과 분열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하는 정당, 승리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전남도당부터 단합하고 혁신하겠습니다. 더욱 더 민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하겠습니다. 도민이 바라는 강한 야당,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겠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연이은 실정으로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달픕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인사랑평 약속은 사라지고, 청년 실업과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 국민들의 한숨만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갈수록 후퇴하고 남북관계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서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주의, 민생,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기는 정당, 희망을 주는 정당, 도민과 당원을 하늘처럼 섬기는 도당을 만들겠습니다. 승리의 희망을 되살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책임지는 유능한 경제정당,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길에 도민 여러분과 당원들이 함께 하기를 청드립니다. 다가오는 4.13 총선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제호로 새해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당보’로 제호 변경 새 출발

전남도당 당보의 제호가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당보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당보’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당은 지난달 28일과 30일 최고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새 당명의 약칭을 ‘더

“더불어 함께 상생발전, 총선승리 하겠습니다”

전남도당-강원도당 자매결연 협약 체결... 14일 전남도당 회의실



국토의 끝자락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전남·강원도당이 손을 잡고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상생발전의 협력 관계 구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김성곤)은 14일(목) 오후 3시 30분무안 남악 전남도당 당사 회의실에서 강원도당(위원장 심기준)과 자매결연 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

김성곤·심기준 양 도당 위원장은 이날 50여명의 양 지역 지방의원들과 당직자, 원로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더불어 함께 하는 전남·강원도당 자매결연 협정문’에 서명한 뒤 방문 기념품을 전달, 교환했다.

협약식에서 김성곤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당은 전통적으로 야당의 강세지역인 호남과 서울 등의 시·도당과 취약지역인 강원·영남권 시·도당이 서로 자매결연 등을

통해 지원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자매결연 체결로 양 지역 도당과 당원들이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에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상호 전문역량을 교류하고, 접목시키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답사에 나선 심기준 위원장은 “자매결연을 계기로 야당세가 취약한 강원도가 제1야당의 뿌리이자 텃밭인 전남과 손을 잡고 총선에서 더욱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 도당 위원장은 협약서 교환 후 모형 거북선(전남)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기원 및 미래로의 비상(飛上)을 상징하는 스키점프대 사진(강원)을 기념품으로 각각 교환했다.

김성곤 의원, 새 도당위원장 취임

4선의 김성곤 의원(여수갑·전략공천위원장)이 지난 12월 23일자로 새 전남도당 위원장에 취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황주홍 전 도당 위원장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에 김성곤 의원을 임명했다. 앞서 더민주 전남 국회의

원들은 회동을 갖고 김 의원을 도당위원장으로 추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월 30일 당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구 불출마 선언을 했으며, 당분간 당 전략 공천위원장과 도당위원장직을 겸임한다. 김 위원장은 “당의 통합과 승리를 위해 조그만 거름이라도 되고자 한다. 민심을 추스리고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 선대위원장에 김종인 전 의원 전격 영입

문 대표,

조기 선대위체제로 전환

야권 대통합 위해

대표직 내려놓겠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멘토로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이었던 김종인(76) 전 의원을 선대위원장에 지난 14일 전격 영입했다.

문 대표는 김종인 카드를 통해 조기선대위 체제로 전환, 분당 사태로 비화된 당 내분을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전 의원의 선거대책위원장 영입을 계기로 선대위가 안정되는 대로 야권 대통합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그 실현을 위해 대표직을 내려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통합의 틀이 마련되면



당 대표직도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문 대표는 또 김 전 의원에 대해 “오늘날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의 상징과도 같은 분이다. 우리의 시대과제인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유능한 정당을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새 로고 발표

개방형 로고로 확장성 구현



손혜원 당 홍보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우리 당의 로고를 공식 발표했다.

더민주의 새 로고는 초록과 파란색으로 점차적으로 변하는 색깔로 ‘더불어민주당’을 표기하고 우측 상단에 깃발 모양의 ‘ㄱ’자를 형상화했다.

손 위원장은 “우측에 날리는 깃발은 자유와 평화, 그리고 진리와 정의가 만들어내는 ‘민주’의 ‘ㄱ’, 민주주의 깃발”이라며 “더민주의 정직하고 투명한 깃발”이라고 설명했다. 메인 로고는 한재준 서울여대 교수의 작품이며, ‘ㄱ’을 활용한 ‘민주네모’의 디자인은 김주성 명지전문대 교수의 작품이다.

손 위원장은 “심볼이나 로고를 하나만 정해놓고 똑같이 써야 한다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새 로고는 개방적 시스템”이라고 했다. 깃발 모양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당명 앞에 ‘노동자와’ 등의 문구를 넣어 ‘노동자와 더불어민주당’ 등의 형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당직개편 단행

정책실장 전진우, 총무국장 이승훈,

전략기획국장 김호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김성곤)은 30일 전진우 전략국장을 정책실장에, 이승훈 전 대변인을 신임 총무국장에 임명하는 등 도당 사무처 당직개편을 실시했다.

또 이광일 전 전남도의원을 대변인(비상근)에, 김호진 기획국장을 전략기획국장에 임명했다. 홍지영 대변인과 최병희 조직국장, 박민건 민원국장, 정옥남 여성국장, 최선화 교육연수국장, 장미랑 총무주임은 유임됐다.

이번 인사는 지난 2월 15일 열린 도당 제2차 운영위원회 당직인선 심의의 건 위임결정에 따라 이뤄졌다.

주태문 사무처장은 “김성곤 신임 도당 위원장의 혁신의지를 잘 받들어 위기에 처한 당을 구하고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전 당직자, 당원들과 함께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사무처 당직인사 명단(12월 30일자).

△전진우 정책실장(전략국장) △홍지영 대변인 겸 홍보국장 △이광일 대변인(비상근·전 전남도의원) △이승훈 총무국장(전 대변인) △김호진 전략기획국장(기획국장) △최병희 조직국장 △박민건 민원국장 △정옥남 여성국장(비상근) △최선화 교육연수국장(비상근) △장미랑 총무주임

인/터/뷰

정세균 전 대표

“실망과 혼란, 우려 딛고 희망을 말하겠습니다”

“지지 보내준 호남민께 죄송”... 6일 도의회서 기자간담회

정세균 전 대표(상임고문·서울 종로)는 지난 6일 야권 분열과 관련, “야권 통합이 최선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호남은 자유경쟁 체제로, 비호남은 연대해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무안의 한 식당에서 김성곤 도당 위원장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권 연대는 차선이고, 단일화는 기본이며, 분열은 최악이다”고 밝혔다. 이어 “연대 거부세력은 국민에게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신당이 연대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우리 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 대표를 지낸 5선 중진이자 현재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그는 “최근의 야권 분열은 이념보다는 권력투쟁의 성격이 크다”며 선당후사(先黨後私) 정신으로 통합과 연대, 단일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요즘 같으면 당에 대해, 저희 세력에 대해 실망이 크실 것”이라며 “실망과 혼란, 우려로 표현되는 것이 현재 광주·전남 시·도민의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실망에 대해 사과하고, 혼란에 대해 이해도 구하고 전말에 대해 설명하고, 우려에 대해서는 희망을 말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전남을 방문했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십년 동안 지지해 준 지역민에게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줘 미안할 따름”이라며 “누군가가 2017년 정권교체 희망을 보여준다면 지역민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줄 것이라 믿는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2010년 민주당 대표로 지방선거를 치를 당시 선당후사 정신 및 통합·연대·단일화 정신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다”며 연대와 단일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양당체제를 비판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다당제는 연대가 기본이다. 다당제를 이야기하면서 연대를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연대를 촉구했다.

이밖에 야권연대 등을 압박하기 위해 안철수 의원 지역구에 지명도가 높은 후보를 내세워 맞불을 놓는 속칭 ‘자객(刺客)공천론’에 대해 “일본의 잘못된 정치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치가 야박해진다”며 “이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새 인물 영입과 관련, “지난 15대 총선에서 천정배·신기남·정동영 등 천신정과 김한길, 김영환 등 10여명의 중량급 신진들을 영입한 이후 제대로 된 영입이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하고 새 인물 영입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곤 도당 위원장은 “비호남지역은 연대, 호남지역은 경쟁구도로 가야 한다”며 “비호남에서 연대가 이뤄지도록 여론을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 위원장, “탈당 의원 지역구 전략공천 최소화하겠다”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성곤 도당 위원장은 지난 8일 “현역 의원들이 탈당한 광주·전남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의 변화, 요동치는 호남 최종 선택은?’이란 주제로 열린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주관 ‘최진 토크쇼’에서 20대 총선 공천 방침에 대해 “탈당 지역구에 경쟁력을 가진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더민주를) 탈당하고 안철수 신당으로

가신 분들의 교체지수가 높다”고 주장한 뒤 “현역의원이 탈당한 지역에는 전략공천을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주에는 탈당하신 분들 말고도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분들이 선의의 경쟁을 거쳐서 공천후보가 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표적공천 하듯이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담양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

여유, 낭만, 힐링

전남도, 전액삭감된 누리과정 예산 추경 추진

도의회 긍정 반응... 최악의 보육대란 피할 듯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사업인데도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전가한 데 반발해 전남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1,433억 원 전액을 삭감해 보육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남도가 관계기관과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11일 도의회에서 도의회와 도교육청, 전남 어린이집·유치원연합회장, 학부모 대표와 누리과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남도와 도교육청, 도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삭감에 따른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오는 2월 16일 도의회 임시회 때 우선 유치원 예산 482억 원에 대해 원-포인트 추경 편성 시 통과시키는 방안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4개월 치 누리과정 예산이 2월중 집행이 가능하게 돼 누리과정 예산 삭감에 따른 부담을 학부모들이 지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공동대책위는 1월 21일 열리는 시·도 교육감 협의회 결과를 지켜보고 오는 26일 3차 회의를 다시 열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도의회 김탁 교육위원장은 “누리과정 공동대책위에서 관련 예산 삭감으로 인한 보육 대란을 막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4개월 치 해당 예산을 원-포인트 추경을 편성해 통과시키는 데 의견이 접근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 의회가 전액 삭감한 누리 과정 예산 가운데 4개월 치가 2월 중 집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남지역의 보육 대란은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의회는 그러나 나머지 누리 과정 예산 951억 원에 대한 예산 처리는 앞으로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부는 12일까지 추경 계획을 내지 않으면 해당 시·도 교육청을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어 시·도 교육청이 반발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에 대해 사립은 다달이 29만 원, 국공립은 월 11만 원을 지원하는 보육예산이다. 전남에는 어린이집이 1,238개소에 3~5세 원생은 2만5,285명이고 도내 유치원은 552개소에 원아가 2만28명으로 집계됐다.

도의회 명현관 의장 등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전남도의회 명현관 의장과 강성휘 기획사회위원장, 정영덕 행정환경위원장, 김기태 의원이 7일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2015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강 위원장은 최우수상을, 명 의장과 정 위원장·김 의원은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번 약속대상은 전국 광역의원 733명과 기초의원 288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공약이행 현황(70점), 주민소통활동(30)을 평가했다.

평과 결과 광역의원 40명과 기초의원 39명이 약속대상을 받았다.

명 의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과의 약속을 묵묵히 수행했을 뿐인데 이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며 “앞으로



도 주민에게 봉사하는 정신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 김근영 당원, 해난안전 공로 대통령 표창 수상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이장을 맡고 있는 김근영 당원이 홍도주민들을 대표해 2015년 국민추천 포상에서 해난 인명구조 공로를 인정받아 단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신안군에 따르면 김 이장과 홍도주민들은 12월 24일 열린 '2015 국민추천 유공 포상식'에서 단체 최고상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홍도 주민들은 2014년 9월 30일 유람선 좌초 사고 시 높은 파도 속에서도 자율구조대, 청년회 등 마을 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고발생 20여분 만에 110명의 승선인원을 단 한명의 인명사고 없이 무사히 구조 완료했다.

또 자율 해상구조대를 결성하여 민관 합동으로 연 2회 해상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전국 첫 마을 의용소방대를 창설하는 등 안전한 관광지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홍도는 기암절벽의 비경을 간직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세계적 해상관광 명소로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170호로 지정됐다. 2012년 관광공사 선정 '한국인이 가고 싶



은 곳' 100선중 1위에 올랐고, 연간 2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김 이장은 “이번 수상으로 안전한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며 “앞으로 더욱 더 재난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도민과 더불어

당원과 더불어

새롭게 혁신하겠습니다

”

전남도당·광주시당, 5·18묘지 합동참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김성곤·여수갑)은 1월 4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광주시당과 합동참배 및 신년 하례행사를 한 뒤 ‘총선 승리를 위한 혁신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합동 참배 및 신년 하례식 행사에는 김성곤 도당 위원장과 박지원·우윤근·이윤석·신정훈 의원을 비롯한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 주태문 도당 사무처장 및 실·국장과 당직자, 당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시당에서도 박혜자 위원장과 장병완·강기정 의원, 박근용 사무처장, 당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양 시·도당은 참배 행사에 이어 민주의 문 앞에서 혁신결의대회를 갖고 다가오는 4월 13일 제20대 총선 승리를 위한 결의 및 구호제창을 했다.

김성곤 위원장은 결의대회에서 “화합과 소통, 낮은 자세로 당원과 도민에 다가서는 혁신에 나서 희망을 주는 정당,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2016년 총선 승리와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해 도당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우윤근 의원은 “지금은 힘을 모아도 부족한 상황이다. 시·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앞으로 더 분발해서 다시 사랑받는 당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신정훈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당원으로서 자기책임을 다하지 못하는데 대해 반성하며, 난국을 돌파해 반드시 승리하는 당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며 “못생긴 소나무가 고향산천을 지킨다는 각오로 당을 지켜내자”고 밝혔다.

도당, 사무국장·연락소장 연석회의 개최



전남도당은 지난 12월 29일 무안 남악 도당 회의실에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연락소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회의에는 도당 주태문 사무처장을 비롯한 도당 사무처 당직자와 목포 이승환 사무국장과 여수갑 조홍호 사무국장 등 사고지역을 제외한 18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연락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도당은 이날 회의에서 제20대 총선 정책기획위원회 발족 등 2016년 새해 사무처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총선승리를 위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8. 빛가람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사업

올해말까지 16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을 완료할 예정인 빛가람혁신도시. 나주시는 이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단계에 이른 만큼 올해부터는 교통과 교육, 편의시설 확충 등 정주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가장 빠르게 조성되고 있는 빛가람혁신도시는 이제 기관이전 시대를 지나 정주여건 조성에 접어든 셈이다.



새로운 미래 백년 에너지수도의 용비를 꿈꾼다

16개 공공기관 이전 완료…정주여건 조성에 박차

주거·의료·교육, 환경 등 편의여건 빠르게 개선중

올해 말까지 16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을 완료할 예정인 빛가람혁신도시. 나주시는 이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단계에 이른 만큼 올해부터는 교통과 교육, 편의시설 확충 등 정주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가장 빠르게 조성되고 있는 빛가람혁신도시는 이제 기관이전 시대를 지나 정주여건 조성에 접어든 셈이다.

2013년 3월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처음으로 빛가람에 둥지를 튼 것을 시작으로 2014년말 에너지 글로벌기업인 한국전력이 이전하면서 현재 14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 5만 자족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한국 인터넷 진흥원’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옮겨오면 빛가람 혁신도시는 16개 기관이 모두 안착하게 돼 광주·전남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성장엔진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전망이다.

주거·의료·교육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

공공기관의 이전에 맞춰 빛가람 혁신도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에도 항량했던 733만㎡의 허허벌판은 이제 빌딩숲을 이루고, 거리에는 유동인구로 활기를 띠고 있다. 빛가람동 인구는 이미 1만 2천명을 넘었으며, 이 가운데 광주·전남과 수도권에서 이전해온 인구가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인구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금년말 3만명을 바라 볼 수 있을 정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주거·병원·교육, 환경 등 정주여건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주거시설은 이미 1만여 세대가 공급되어 입주하고 있으며, 금년 말이면 1만 3천 세대에 이를 전망이다. 병원, 금융기관, 학원 등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돼 혁신도시 내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교육시설은 현재 5개교(유2, 초·중·고 각 1개교)가 문을 열었으며, 금년에도 유치원1, 초등학교 1개 학교가 추가로 개교할 계획이고, 2018년까지 14개 학교가 혁신도시



에 들어서면 교육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작년 5월 주민센터 2층에 개설한 u-city통합관제센터는 전 지역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여 입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안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악취로 큰 고통을 주었던 호혜원 문제가 완벽하게 마무리 될 전망이며, 주차난 해결을 위해 중앙 호수공원에 300면과 우정사업정보센터 옆 클러스터 부지에 80면 규모의 주차장이 설치된다.

아울러,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도시에서 시내버스를 집중배차 하여 운행하고 있다. 혁신도시 어느

구간에서나 평균 25분이면 시내버스를 탑승할 수 있도록 노선을 개편하여 교통 편의를 증대 하였다.

앞으로도 혁신도시에서 대도시권으로 진입하는 노선, 원도 심과 연계하는

노선도 평균 배차간격을 15분 이내까지 끌어올리고, KTX, 고속버스, 시외버스의 환승체계까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공동주택 입주상황을 고려하여 셔틀버스도 개설할 계획이다.

빛가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수도 건설

한전의 나주이전은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이라는 효과를 넘어 세계시장과 겨룰만한 신성장 동력으로 에너지신산업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나주 미래 백년에 서광을 비치게 하고 있다. 나주시는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2천300억여원을 투입하여 혁신산단과 빛가람혁신도시를 포함한 나주 전역을 에너지신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밸리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본계획의 목표는 2025년까지 에너지기업 500개 유치,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는 것으로, 지난해 ‘에너지밸리 지원 조례’ 제정을 이미 완료한 시는 앞으로 연구개발 특구 지정추진, 스마트 에너지티조성 등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에너지밸리 인프라구축에 모든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기초전력연구원분원과 에너지밸리센터가 문을 열었으며, 첫 시행사업으로 시작한 원도심 3.9km 구간 전신주 지중화사업도 1단계 구간인 1.8km 공사가 차질 없이 완료되었다. 금년 10월이면 2단계 사업도 마무리돼 원도심이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탈바꿈 될 것이다. 또한, 에너지밸리센터가 2017년 준공되면 창업지원, 인력육성, 연구개발 등 에너지밸리 조성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나주시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영국의 사이언스파크 같은 특화된 도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 선정과 함께 다양한 읍성권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나주시가 혁신도시와 에너지밸리를 미래성장 동력원으로 새로운 미래 백년도시로의 용비를 꿈꾸고 있다.



김성곤 의원, 미주 한인의 날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

김성곤 의원(여수갑·당 재외동포위원장)은 13일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미주한인재단이 선정한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수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지난 100여 년 동안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적인 이민 사회를 만들어 온 한인사회에 경의를 보낸다”며 “이제는 한인들이 모국에서의 정치력 신장에

더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상당수의 한인들이 주 의회에 진출한데 이어 2014년에는 버지니아주 동해 병기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저력을 보여줬다”며 “고국에서 열리는 4·13 총선 재외선거 등록신청(11.15~2.13)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성곤 도당 위원장이 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앞에서 참배를 마친 뒤 새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 국회의원 다면 평가 상위 10%에 선정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동료의원, 보좌진, 기자단이 참여한 국회의원 의정활동 다면 종합평가에서 상위 10%에 선정되었다.

신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이 실시한 국회의원 다면평가에서 30점 만점에 26.7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기존 여론조사가 담아내기 어려운 입법, 정책 활동에 대한 질적 평가가 반영돼 객관성과 공신력 있는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 의원은 “NGO시민단, 메니페스토 실천본부, 언론기관 평가에 이어 국회의원이 포함된 다면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돼 매우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치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면평가 야권 상위 10% 만점 30점, 14명

		기자평가	보좌진 및 전문위원 평가	의원 상호 추천 평가	다면평가 총점
김민기	초선	10.0	10.0	10.0	30.0
김용익	초선	10.0	10.0	10.0	30.0
박남춘	초선	10.0	10.0	10.0	30.0
우상호	재선	10.0	10.0	10.0	30.0
정성호	재선	10.0	10.0	10.0	30.0
전해철	초선	10.0	10.0	8.6	28.6
홍익표	초선	10.0	8.3	10.0	28.3
박병석	4선	10.0	10.0	8.0	28.0
김성곤	4선	10.0	10.0	7.5	27.5
김관영	초선	10.0	10.0	7.0	27.0
신정훈	초선	10.0	6.7	10.0	26.7
우원식	재선	10.0	8.3	8.0	26.3
최민희	초선	10.0	10.0	6.3	26.3
김기식	초선	10.0	10.0	6.0	26.0

※ 더불어민주당 그래픽: 이승현 the300 디자이너



우윤근 의원, 원내대표 합의이행률 95.4% 최고

서울신문이 지난달 21일 19대 국회 합의문 97건, 600개 항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우윤근-이완구 원내대표 조합이 ‘찰떡궁합’을 과시하며 합의 사항 이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윤근 의원(광양·구례)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조합은 합의 항목 108개 가운데 103개를 이행해 95.4%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세월호특

별법 합의와 예산안 법정 처리시킨 준수가 주효했다. 하지만 바로 직전인 ‘이완구·박영선’ 조합은 그해 4월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정국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40.5%에 그쳤다.

‘유승민·이종걸’ 조합은 43개 합의 항목 가운데 36개(83.7%)를 이행 완료했다.



우윤근 의원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영화 ‘히말라야’ 시사회에 오문선 대장과 함께 특별 게스트로 초청돼 관람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개호 의원, ‘밥쌀용 쌀 수입 중단 결의안’ 발의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쌀값 하락 초래하는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정부양곡 재고량이 190만톤에 달해 관리비용만도 수천억원에 이르는 공급 과잉 상황에서 정부가 밥쌀용 쌀을 수입하여 쌀값하락

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농업은 미래 전략산업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서 다가오는 식량안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개호 의원은 지난 11일 영광 한전문화회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윤석 의원, 군 번영회 주관 무안군 신년하례회 참석

이윤석 의원(무안·신안)은 지난 6일 군청 회의실에서 무안군 번영회(회장 박일상) 주관으로 열린 2016년 신년 하례식에 참석했다.

이날 하례식에는 이 의원과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비례), 김철주 군수와 군의회 이요진 의장 등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016년 붉은 원숭이 해를 맞아 지역의 지도자들이 원활한 소통과 화

합을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일상 군 번영회장은 “지난해 말 노을길 기공으로 무안군 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한 만큼 올해도 군정에 적극 협조해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석 의원은 지난 6일 무안군청에서 열린 무안군 번영회 주관 신년 하례식에서 축하 케익을 자르고 있다.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김영록 의원, 해남·진도·완도서 의정보고회

“주민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민생정치 실현”

김영록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지난 7일과 12일 해남·완도문화회관, 13일 진도 향토문화회관에서 각각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김 의원은 각급 기관 단체장과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해남 보고회에서 “해남의 철도시대와 고속도로시대를 열어가고 교육문화 공간을 확충 등 해남발전의 미래를 열어갈 동력을 마련했다”며 SOC 예산확보 등의 성과를 보고했다.

그는 “지난 8년동안 민생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KTX를 940회 탑승하며 실새 없이 다녔던 것 처럼 앞으로도



현장을 찾아 주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기성정치를 바꾸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지난 12일 영산포와 나주 동지역 의정보고회를 끝으로 지난 12월 14일 나주 세지면에서 시작한 ‘신정훈의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모두 마무리 했다. <사진>

신 의원은 영산포 보고회 인사말을 통해 “이제껏 어려운 처지에서 저를 선택해서 키워주신 지역민께 감사드리며, 지역민이 키워준 국회의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일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첫 등원 이후 1년 5개월간의 짧은 의정보고를 드리면서 국민들의 무거운 어깨에 힘을 북돋아줘야 할 정치가 하루도 편하게 해드리지 못했다”며 “국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농업문제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의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는 한 번도 회피하지 않고 목청 높여 치열하게 싸워 왔다. 앞으로도 기성정치를 바꾸고 국민들이 아파하는 현장에서 내일처럼 풀어내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우윤근 의원, 광양·구례서 의정보고회 가져

“국회 증액예산 258억원으로 전남 최대 성과”

우윤근 의원(광양·구례)은 지난 11, 12일 이틀간 지난 4년 간의 성과를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양시립중마도서관 체육관, 광양읍사무소, 구례 섬진아트홀에서 각각 개최한 보고회에서 우 의원은 “지역민들의 전폭적인 성원으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법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두루 역임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해 “광양·구례 올해 국회 증액 예산이 총 11건, 258억원(총사업비 4,898억원)으로 전남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이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2014년 특별교부세가 총 303억여원에 달해 19대 국회 여·야지도부 12인 중 가장 많았다는 보도도 소개했다.

우 의원은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해 “제1야당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지도부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저부터 사



죄드리며, 어려운 매일수록 힘을 모아 야권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우윤근은 누구의 계보도 아닌, 바로 지역민들의 계보다. 오직 주민 여러분만 두려워하고 섬기는 일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국회의원
공동성명서

분열을 중단하고 대통합을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총선을 불과 80여일 앞두고 대한민국의 제 1야당이자 정통 개혁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총선 패배의 어두운 그림자가 속속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지역민심이 우리 당을 불신하게 되면서 최근 지역 현역 의원들의 잇따른 탈당과 신당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더민주에 몸담고 있는 국회의원의 일원으로서 뼈아픈 자성과 반성을 합니다. 우리 ‘더민주’가 어떤 당입니까? 광주·전남 시·도민에게 우리 당은 숙명이었고, 응어리진 한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지역민들은 민주개혁 세력의 본산이라는 자존심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지역주의의 망령이 퍼붓는 온갖 저주와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기꺼이 당비를 바치고, 물표를 주셨습니다.

우리 광주·전남 국회의원 4인은 오늘 시·도민이 지키고 키워주신 민주개혁 세력의 만아들, 더불어민주당을 지킬 것을 선언합니다. 흩어지면 패배합니다. 분열하면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가 불가능합니다. 탈당과 분열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당을 지켜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혁신하는 정당, 승리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단합하고 혁신하겠습니다. 더욱 더 민심에 귀 기울이고 시·도민이 바라는 강한 야당,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민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겠습니다. 당 사수 의지를 천명한 우리는 지역민의 뜻을 받들어 승리를 위한 대통합과 혁신의 길로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탈당을 고민하는 의원들께서는 당에 남아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친노와 비주류의 분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도 아닙니다. 이제 호남을 위해서도 더 이상의 분열을 중단하고 대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재인 대표와 현 지도부는 국민에게 천명한대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김종인 선대위원장에게 대표와 지도부 권한을 확실하게 이양해야 합니다. 새로운 인재의 발굴과 영입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정당, 희망을 주는 정당, 국민과 당원을 하늘처럼 섬기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승리의 희망을 되살리겠습니다. 다가오는 4.13 총선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시·도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곤, 우윤근, 강기정, 신정훈

3·26 개각… 민주당 구주류 약진, 권노갑 전 최고 부활

2002년 전당대회, ‘포스트 DJ’시대 놓고 당내 5대 세력 대격돌

10. 현실화된 집권 후반기 레임덕

2000년 말, 권노갑 전 최고위원의 2선 퇴진 이후 김종권 대표체제가 등장하면서 동교동계는 당의 요직에서 밀려났다. 그러나 이듬해 3·26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통해 동교동계는 청와대 비서실을 사실상 장악하는 등 다시 정치전면에 화려하게 부상한다.

당시 주요 언론은 “권 전 최고위원이 마포사무실을 열어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소장파가 반격을 가한 것이 지금까지 민주당내 권력투쟁의 큰 줄거리라고 할 때, 당권을 두고 동교동과 소장파 간의 대결이 보다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당내 권력투쟁이 본격화하자 “몽쳐야 산다”는 동교동계의 세 결집 현상은 급속도로 진행됐다.

2001년 2월 동교동계는 김홍일 전 의원의 주선으로 단합모임을 가졌다. 모임은 2000년 8월 30일 새천년민주당 전당대회 때 권노갑, 한화갑 두 사람의 갈등이 표면화된 이후, 권 전 최고위원의 2선 후퇴, 김종권 체제의 등장 등으로 위축됐던 동교동계가 단합을 다지는 일종의 친목모임이었다. 이후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하고 3월에는 권노갑, 4월에는 한화갑 전 최고위원 주도로 모임이 이어졌다.

4월 23일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2002년 대선에서 김 대통령이 선택한 후보에 대해 그가 누구든, 개인적 이해와 관계없이 함께 움직이자”고 결의했다. 정치적 미래의 선택권마저 DJ에게 넘기는 동교동계 특유의 충직한 결론이었다.

“오직 단결만이 살길”

모임의 기본 멤버는 김 대통령의 비서 출신 현역 국회의원들. 회원으로는 권노갑, 한화갑, 김옥두, 이윤수, 이협, 최재승, 박광태, 설훈, 윤철상, 김태식, 정세균, 김택배 전 의원과 남궁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20명 미만이었다.

당시 한 참석자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땅에 떨어진 마당에 한때 비서들이 우리라도 몽쳐 대통령의 지지를 올리고 단결해 잘 대처해 나가자는 뜻에서 모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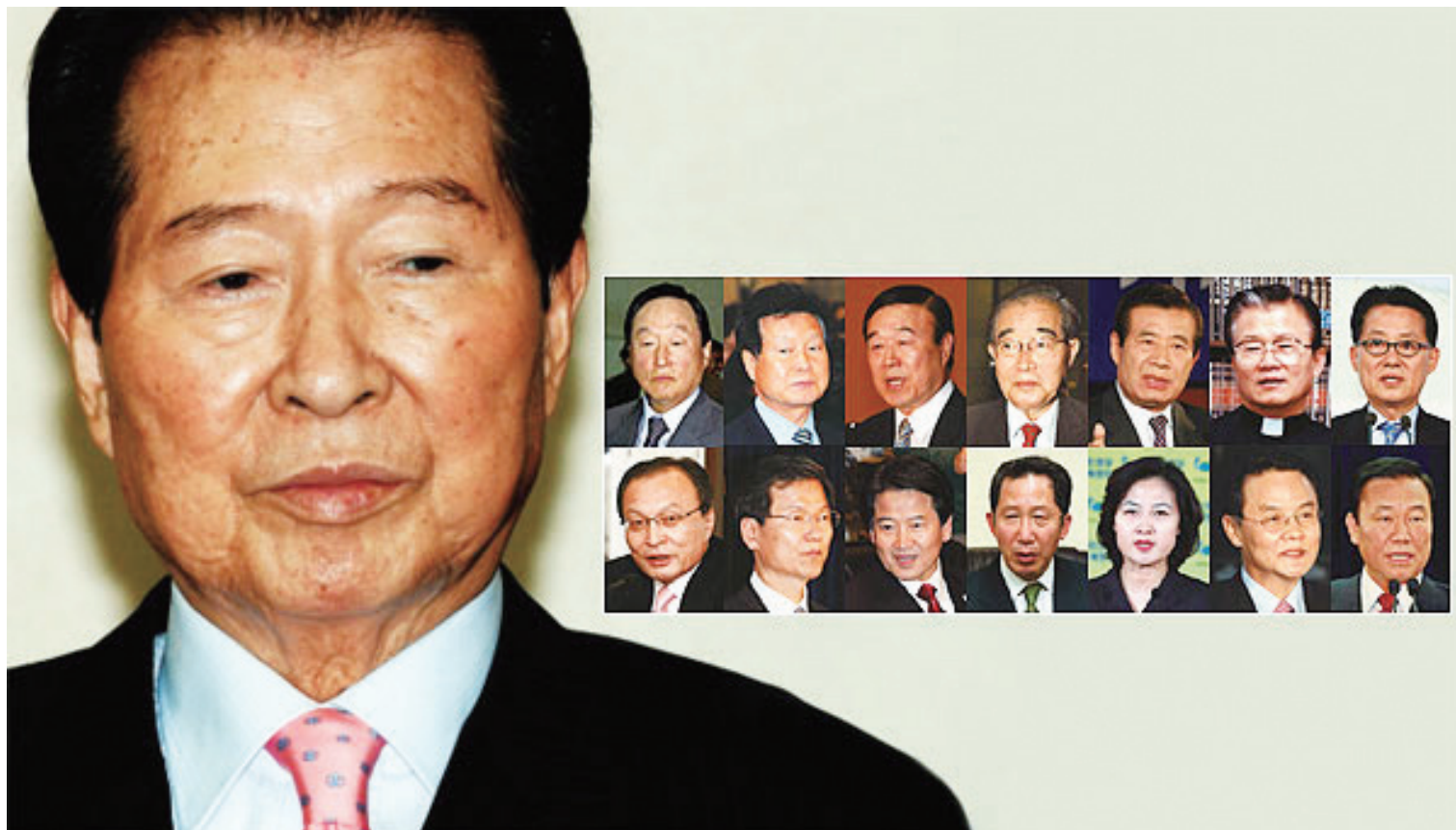
물론 두 최고위원 사이의 갈등이 변수이기는 했지만 동교동계 인사들은 “두 사람의 갈등은 지엽적인 문제일 뿐이며 동교동계는 공동 목표를 앞두고 항상 행동 통일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런 움직임의 이면에는 당권장악을 위한 동교동계 나름의 계산이 깔려있다는 게 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그러나 동교동이든 비 동교동이든 한 쪽의 퇴출을 전제로 한 극한 대결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 내분 초기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진단했다.

“현재의 당내 갈등은 정확히 표현하면 ‘권력투쟁’이 아니고 ‘내부갈등’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 권력을 한 쪽이 독점하는데 대한 다른 쪽의 반발로 갈등양



60년 정치사 함께한 DJ의 사람들(사진=고려대 현대정치연구회 제공)



권노갑 전 최고위원과 김옥두 전 사무총장, 박양수 전 의원 (뒷줄 가운데)(사진=고려대 현대정치연구회 제공)

상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권력투쟁이란 패배자의 퇴출을 전제로 한 싸움이다. 이번 갈등에서 패한 세력이 당을 떠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새천년민주당내 세력 ‘5대(大) 그룹’

이 관계자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민주당의 당내 세력을 크게 ‘5개 그룹’으로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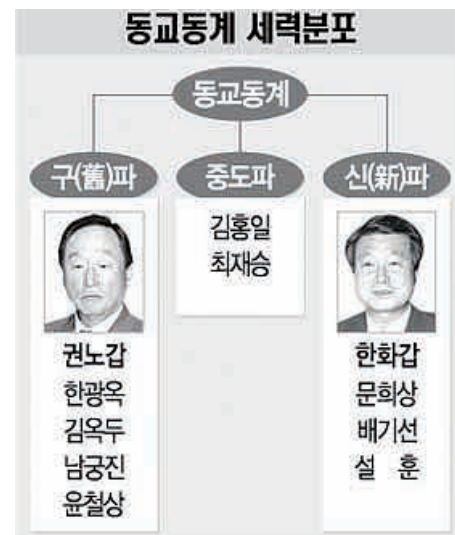
첫째는 동교동 구파. 권 전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한 인사들이다. 두 번째는 한화갑 전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한 동교동 신파. 세 번째는 이인제 전 최고위원(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당내 중부권 그룹을 꼽을 수 있다.

네 번째는 김근태 전 최고위원(2011년 작고)과 노무현 전 대통령(2009년 작고)을 따르는 개혁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수이기는 하지만 김종권 대표 등의 구 여권 출신과 당내 영남 인사들이다.

5대 그룹은 ‘친 DJ세력’의 결집이자 ‘반 이회창 세력’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당을 깨고 나가는 모험을 감행할 정치세력은 당내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해석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2001년 5월말 안동수 법무부 장관(현 변호사) 인선 파문 때 비선조직 척결과 당의 쇄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던 초·재선 의원들이 5대 그룹에 골고루 흩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통일된 주장을 펴지 못하고, 쇄신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한 것도 결국 소속 계파가 제각각이었기 때문이었다. 봉합국면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의 전망이 어느 정도는 현실로 드러났다.

사건 초기 격렬했던 대립이 무색할 만큼 길어로는 조용했다. 김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었다지만, 양대 세력인 동교동계와 초·재선 그룹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물고 있었다.

기세등등했던 초·재선 의원들도 “일단 우리가 할 말은 했으니 결과(김 전 대통령의 결단)를 지켜보자”며 나서서 말하기를 꺼렸다. 동교동계 역시 초·재선 그룹에 대한 개별적 비난은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갈등의 원인이었던 ‘권력의 쏠림 현상’이 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본적인 사태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부쩍 모임 횟수를 늘렸던 동교동계의 움직임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권을 둘러싼 당내 갈등요인은 커져만 갔음을 반증한다.

2002년 초 새천년민주당 전당대회는 ‘포스트 김대중’ 시대 선두주자를 꿈꿨던 당내 정치세력간의 사활을 건 대격전장이 되었다. 동교동계가 생존을 건 승부수를 던질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송승환 편집위원



지난 4일 광주 5.18 국립묘지에서 열린 전남도당과 광주시장의 합동참배 및 혁신결의대회에서 김성곤 도당 위원장이 박혜자 시장 위원장과 함께 분향하고 있다.



4일 5.18묘역 합동참배 후 가진 전남도당 당원 신년하례 행사에서 김성곤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5일 여수 상공회의소 주최 신년 인사회가 이낙연 지사와 김성곤 도당 위원장, 주승용 의원,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남도당 김성곤 위원장(왼쪽)과 강원도당 심기준 위원장이 지난 13일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뒤 기념품을 교환하고 있다.



4일 열린 목포 상공회의소 주최 신년인사회에서 이낙연 전남지사와 김성곤 도당위원장 등 기관단체장과 기업인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지난 8일 화순군민회관에서 화순군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성곤 도당 위원장은 지난 6일 도당 회의실에서 당 소속 여성 지방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총선승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당은 지난 13일 도당 회의실에서 총선정책기획단(위원장 양원 목포대 교수) 발족식 및 첫 기획회의를 열었다.

남악
시론

위기는 또 다른 기회, 더욱 견고한 단합과 통합으로!!



주태문
전남도당 사무처장

새해가 되었어도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건네기가 사뭇 망설여지는 요즘입니다. 세태의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정치권의 모습들, 정치인들이 가진 각자의 몫에 대한 이전투구로 비춰지는 현재의 모습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만을 가져봅니다. 현재 야권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진정 어느 것이 국민을 위한 행위이고, 어느 것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인지 당원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발생하지 말았어야 했음을 통감하며,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은 우리 당직자들의 책임입니다.

지난 12월은 성탄이 되어도 캐롤송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 다. 국민들은 하루하루의 생활이 더욱더 어려워져 감을 피부로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청와대에 앉아 국회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국회

를 질책하고, 그들이 원하는 법이 통과되면 경제가 바로 살아날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매번 경제살리기법이라며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하청당이 되어 지시받은 법 통과에만 골몰하였습니다. 그렇게 집권 3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경제와 삶의 질은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수렁입니다.

이렇게 수렁에 빠진 우리는 비판보다는 반성을 위해 지 나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시작된 인사실패, 복지공약 파기, 지속되는 남북경색, 청년실업증가 등 기본적인 정책 실패는 차치하고라도 300명이 넘는 우리 자녀들을 가슴에 묻어야만 했던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는 또 어떠했습니까? 이렇듯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만이 기억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짐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권교체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이 마음까지 덮친 이런 질곡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외쳐왔던 정권교체를 통한 차별철폐나 지역균형발전 등 거론했던 문제는 이미 부차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국정운영은 그렇지 않아도 갈 길이 먼 국가의 앞날을 회색빛으로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한 살얼음판의 국가를 앞에 두고 우리 야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호남을 숙주로 계파가 형성

되고 대립과 분열만을 거듭해 가고 있습니다. 호남이 분열된다면 다가오는 총선승리와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명약관화합니다. 우리 호남은 늘 중심이었고, 핵이었습니다. 호남의 분열은 새누리당의 영구집권을 터주는 길이요, 국민을 불행으로 몰아가는 길입니다. 호남이 국가와 국민을 암울한 길로 몰아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제1당이 되어야 합니다. 제1당의 길은 단합과 통합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상황을 극복해야만 하고, 그 극복의 주체는 당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모으고 앞장서 주셔야만 합니다.

누구나 보는 눈과 생각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지향하는 목표는 같지만 방향과 수단, 도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러한 수단과 방법가지고 다룰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향점이 같다면 손잡고 같이 가야합니다. 이것이 2016년 벽두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이념적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실사구시(實事求是)와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정치를 실천합시다. 그래서 반드시 총선 승리를 이루어 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목적이 성취되는 2016년을 만들기 위하여 작은 힘이나마 여러분 손잡고 함께 하겠습니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탈당하는 국회의원들, 당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 드리며, 감사인사 전합니다.

당원
논단

김노금
전남도당
다문화보육특별위원장

눈앞에 닥친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대화로는 해결책을 찾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니 이런 딱 할 일이 없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라는 이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기요 기만국이라는 사실은 애써 피한 채 누리과정 예산은 법에 따라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긴축 재정을 펴고 있는 지방의 교육청에서는 재정이 파탄지경이라고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가 온갖 생색과 큰 소리는 다 쳐놓고 예산 한 푼 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검찰 고발까지 가겠다니 국민들은 지지리도 나랏님 복이라고는 없는 기박한 팔자 탓이나 하

누리과정 예산 대통령이 책임져라

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는 추가지원 없이 교육청에 생짜로 수조원의 지출 항목을 떠넘기고 있는데 교육감들의 항의는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0~5세 보육 국가 완전 책임제 실현”이라는게 오늘날의 이러한 떠넘기기 상황에 안들으면 죽는다 식의 공갈과 협박을 지칭한 것이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세 살 먹은 아이에게 물어보아도 이번 상황은 정부의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할 것이다. 각종 언론의 통계를 들여다봐도 이번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보육대란은 세대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부의 책임을 묻는 답이 월등히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법원 제소나 검찰 고발이니 들먹이는 것은 한 편의 코메디다. 완전히 공갈이요 협박인 것이다.

실사 법적조치를 취한다 해도 언제 결론이 날 것인가? 그 정도의 간단한 법 지식은 초등학교생들도 아는 사실이다. 그때까지 보육대란을 참고 견디고 있으라고? 이 정부는 길가는 소도 웃을 일을 왜 그리 눈감고 아웅하며 국민들을 기만하는지 모르겠다.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 주장의 거짓과 진실에 대해서도 알만한 국민은 모두 알고 있다. 2011년 누리과정 발표당시 시,도 교육감들과 단 한마디의 협의 한번 해보지 않고 오직 표 얻는데 급급하여 형편도 되지 않는 상황을 짝짜꿍했던 정부가 아니었던가?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의 교육과 보육문제에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해서

는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청년시대부터 직장다운 직장을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미래의 불안 때문에 결혼적령기가 늦어지고 설사 결혼을 하더라도 내 자녀에게 흡수저를 쥐어주게 될까싶은 두려움에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현실이다. 이들 젊은 부부들이 현재의 보육대란을 보면서 과연 아이를 한명이나 낳고 싶어질런지 그것도 또 한 의문이다. 정부가 온갖 바람직한 정책을 다 동원해도 또 모든 정책에 우선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을 왜 모르는 것일까?

우리의 미래세대를 기르는 보육과 교육의 문제가 국가의 모든 정책에서 뒷전이라면 젊은이들은 점점 결혼과 출산이라는 것에 대해 멀어지고 말 것이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과 같이 저조한 출산률이 계속되면 급격한 인구의 감소로 인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국가의 문을 닫을 확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어쩌다 이렇게 됐나.

누리과정 예산의 갈등은 백 프로 현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는 거짓과 억지의 탈을 벗고 현재의 보육대란에 대해서 결자해지해야 한다. 많이 늦었지만 조속히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교육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즉각 구성하고 누리과정 대책을 마련하라, 그리고 정부의 예비비까지라도 동원해서 더 이상의 보육대란을 막을 것을 촉구한다.

전남도당 12월 재정운영 보고

수입, 전년도 이월금·기관지발행수입 등 7억9,412만원
지출, 조직활동비·정책개발비 등 8,136만9,732원

전남도당(위원장 김성곤)의 지난해 12월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7억9,412만9,839원과 상급당부 보조금 외 수입 4,465만7,010원, 당비 1,323만1,000원, 기관지발행수입 100만원 등 7억9,412만9,839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당은 이 가운데 조직활동비로 2,427만3,220원, 정책개발비로 374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인건비 항목으로 4,590만50원, 사무소 설치운영비 743만5,632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말 현재 잔액은 7억7,177만6,982원임을 보고드립니다.

12월 재정 운영내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 또는 의견이 있으신 당원들께서는 도당 사무처 장미랑 총무주임(T.061-287-121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더욱 투명하고 알찬 도당 재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수입·지출 총괄표

(수입·지출기간 : 2015.12.01 ~ 12.31)

구분	과 목			계	보조금외	경상보조금	
수입	전 년 도 이 월			794,129,839	785,589,968	8,539,871	
	당 비			13,231,000	13,231,000	0	
	기탁금(중앙당예한함)			0	0	0	
	후 원 회 기 부 금			0	0	0	
	보조금(중앙당예한함)			0	0	0	
	차 입 금			0	0	0	
	기관지발행사업수입			1,000,000	1,000,000	0	
	지 원 금	보조금	상급당부	0	0	0	
			하급당부	0	0	0	
			계	0	0	0	
		보조금외	상급당부	44,657,010	44,657,010	0	
			하급당부	0	0	0	
			계	44,657,010	44,657,010	0	
		소 계			44,657,010	44,657,010	0
	그 밖 의 수 입			128,865	128,865	0	
	합 계			853,146,632	844,606,843	8,539,871	
지출	선거비용			0	0	0	
	선 거 비 용 외	기본경비	인 건 비	45,900,050	37,360,179	8,539,871	
			사무소 설치 운영비	7,435,632	7,435,632	0	
		정 치 활 동 비	정 책 개 발 비	3,741,000	3,741,000	0	
			조 직 활 동 비	24,273,220	24,273,220	0	
			여 성 정 치 발전비	0	0	0	
			그 밖 의 경 비	19,830	19,830	0	
		지 원 금	보조금	상급당부	0	0	0
				하급당부	0	0	0
				계	0	0	0
			보조금외	상급당부	0	0	0
				하급당부	0	0	0
				계	0	0	0
	소 계			0	0	0	
	합 계			81,369,732	72,829,861	8,539,871	
	잔 액			771,776,982	771,776,982	0	

더민주 외부 영입인사들 광주에서 ‘더불어 컨퍼런스’ 연다

24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새로운 호남 정치의 비전 제시



우리 당이 영입한 외부 인사들이 오는 24일 광주에서 당의 비전을 제시하는 컨퍼런스에 대거 참석한다.

더민주 김성곤 전남도당 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 컨퍼런스' 광주 행사가 24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당·전남도당 공동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컨퍼런스에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표창원, 김병관, 오기형, 김빈, 양형자 등 영입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시민들과 토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컨퍼런스는 세계적인 지식강연 웹사이트인 테드(TED)를 본떠 짧은 강연 형식으로 진행된다.

화순 출신 양형자 전 삼성전자 상무는 '학력, 지역, 성별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를 주제로 지역민들에게 강의를 할 계획이다.

재미를 더하기 위해 남비게임 등 다양한 행사와 공연도 마련돼 있다. 김성곤 위원장은 "화제가 되고 있는 새인물들이 광주에서 새로운 정치의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다"며 시도민과 당원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안아주세요” 표창원 소장, 광주서 ‘프리허그’



우리 당 외부 영입 1호 인사인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지난 1일 광주 충장로 광주우체국 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안아주세요'라는 주제로 프리허그 행사를 열었다.

표 소장은 이형석 광주 북구를 예비후보와 함께 개최한 이날 행사를 마치고 인근 카페에서 시민들의 애환을 청취했다.

표 소장은 “광주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광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겠다.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힘들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잊지 말자”며 “묵묵히 국민을 위해 나아간다면 진심이 통하고 추락한 국격을 회복할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들에게 ‘함께 힘냅시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했다.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전남도당 청년위원회

국민과
더불어민주당

소녀상의 눈물 더불어민주당이 닦아 드리겠습니다

